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 유 미

(창신대학)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 자본 변화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변화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가가 노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가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증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적 자본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신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참여한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자리유형에서 사회참여는 상승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특히 사회참여가 증가하였다. 짧은 참여기간 동안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참여는 보호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사회적 자본 변화

*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10년 하반기 우수박사학위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이며, 2018년의 노인 인구비율은 14.3%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9).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관련 정책 또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고령인구의 경제적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고 정년 단축이나 구조조정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악화시켜 노인 실업과 취업에 관한 인식 또한 증가하였다. 노년기의 일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도 노년기의 일을 생산적 활동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노년기의 일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통계기준이나 노년학계의 일반적 관점에서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일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노동참여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권구영, 2007).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욕구의 충족 방법은 비공식적인 소득이전과 공식적인 소득이전이 있으나 이들로 인한 생활유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빈곤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관계는 악화되었다. 평균은퇴연령이 57세인 상황에서 시장의 목적에 맞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노동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2004년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 과제'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화하였고 보충적 소득보장, 노동참여기회보장,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령사회에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을 시행하여 활동적 고령화, 노동생산성 제고, 고령자의 일과 삶(work and life)의 향상을 도모한지 6년이 되었다¹⁾. 이에 대한 평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되어 노인고용에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이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증진, 보충적 소득보장, 건강증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 선진사회, 성숙사회의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언급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이 급부상하고 있다. 후쿠야마는 최근

1)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면서 그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23조임. 또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1010년)인 "새로맞이 플랜 2010"을 발표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활동적인 노인사회참여 여건 조성'에 포함되어 있음.

연구에서 세계사회의 지형도를 신뢰를 준거로 나누어 성공적인 국가는 사회적 자본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Fukuyama, 1995). OECD와 같은 정치지향의 국제기구에서도 한 국가의 사회복지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시장중심의 거버넌스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과 조정을 끌어낼 수 있는 기제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행복과 만족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년기의 삶은 국가나 가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 결정되어진다.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노동이나 고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한국학계의 논의는 주로 사회적 자본이 유발하는 '효과'(effect)에만 주목할 뿐 그것이 '형성'(formation)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확대의 개념만이 아닌, 가지지 못했던 사회적 자본이 생겨나는 현상과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 감소되는 현상도 고려한 '변화'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 삶의 변화를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노인에게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노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노인 고용정책의 방향성과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노인을 평가할 때,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전후비교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고용정책 중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 자본 변화를 통해 평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과 참여한 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살펴보고,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변화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특성과 사회적 자본 특성 및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또 다른 효과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로서 사회적 자본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경제적 활동과 노인의 삶

최근 사회는 소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의 비중을 축소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여 경제적 생산체제와 복지제도의 상보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인식을 수정하여 생산적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노인 복지분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의 독립성과 생산성을 인정하고 노인의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에게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참여 봉사과 같은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정경희 외, 2005). 고학력, 고숙련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생산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는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을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보상방안과 개인적 관계성을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신뢰를 조성하려는 시책으로 실시해 온 만큼 이러한 인식이 본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년기에 적절한 일을 갖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요인의 국내외 여러 실증연구들은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관계망,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등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여나 공헌의 차원을 떠나 노년기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생산적 활동은 성공적인 노화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도 노년기의 일을 단순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노년기의 일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통계기준이나 노년학계의 일반적 관점을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일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의 의미로 규정하고 유급 경제활동과 무급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기여가 큰 활동까지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권중돈, 2010).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노년기의 단순한 일에 대한 참여가 아닌 경제적 생산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활동들이 개인차원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행해지는 취미활동 등은 노년기 생산 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년기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생계유지를 돕는

것은 물론이며 역할상실에 따른 상실감을 치유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노년기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노인의 부양부담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부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노인 경제활동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최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인식을 수정하여 경제적 생산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노인복지분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 고령화가 서구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UN은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기여와 공헌을 인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윤순덕·한경혜, 2004).

노인일자리란 노인이 생활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하는 곳으로, 노인취업, 노인고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복지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임우석,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노년기의 단순한 일에 대한 참여가 아닌 경제적 생산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가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운영,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개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핵심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에 따른 문제들의 최소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인의 증가로 사회 안정망 미비 등으로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반환경 마련의 필요, 이념적으로도 남아 있는 잔존 능력에 대한 경제·사회적 가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변재관, 2005) 이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민간분야에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의 유형으로 분류되나, 본 연구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을 중심으로 살

피보았다. 공익형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 등)에서 창출된 노인 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로,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동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형 일자리는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였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 및 문화재시설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 또는 해설하는 일자리로, 기존의 인적자본을 형성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적자본을 더욱 축적해 나가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된 모임을 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키워나가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도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다른 유형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복지형 일자리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참여노인들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참여기회를 통해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없었던 자신의 소득이 생기면서 느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전에 비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 형성도 가능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긍심 증진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참여자가 인적자본이 부족한 취약계층 노인이 가장 많으므로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을 원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하다.

시장형 일자리는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 받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의 참여 정도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도움을 주어, 사회적 관계를 통한 또 다른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국가 및 제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이며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확보된다면 노인의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인적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에게 유리하기도 하며, 해당수요처에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다.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노인의 기존의 사회적 자본, 물질 자본, 인적자본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유형이 가지는 사회적 낙인성을 배제하고 인력활용을 위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노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형성은 가능하다.

3)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적이라는 의미와 자본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한 개인에 배타

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relational)이며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공공재(public good)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과 노력의 사회적 투자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인적, 물적 자본투자와는 다소 덜 직접적인 방식의 투자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문화와 행동규범의 산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이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 의미를 반영하듯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단일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있다.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가장 일반적인 준거인 콜만(Coleman)과 퍼트남(Putnam)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한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Coleman, 1990), 구조화된 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규정된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은 친근감이나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제도화된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실질적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Bourdieu, 1986)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 자본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그것이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Coleman, 1990).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 역시 높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사오작용 속에서 공유되는 규범, 가치, 상호호혜성, 신뢰, 네트워크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사회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일찍이 토그빌(Tocqueville)은 산업화 초기 미국의 민주적 시민사회가 발전한 배경에는 여러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퍼트남은 이탈리아의 지역사회를 비교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중부와 북부보다 역사적으로 지역신문, 문학, 음악, 스포츠 등과 같은 시민결사체 모임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민참여와 경제발전이 연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이라고 말한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성실한 계약 이행, 정보 및 노후의 교환, 위험의 분담,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처 등 긴밀한 협력관계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학자들마다 다양한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의 삶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하여 살펴보았다.

① 신뢰(trust)

신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Coleman, 1988), 즉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구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반면 잘 알지 못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부조라고 명명하여,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협력을 위한 규범이나 가치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합의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Stolle, 2003).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호부조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범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한다(안성호, 2004).

② 관계망(network)

사회적 자본에서 관계망의 존재는 자연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관계망은 제도적 수준에서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며 제도적 의례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관계망이 의식적·무의식적 사회관계를 수립하거나 재생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투자전략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퍼트남은 시민참여 관계망을 중심으로 관계망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의 규범과 관계망에 포함되었다고 보면서 이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퍼트남에 있어 관계망이란 개인들 사이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들(associations)로 대표되며, 이러한 관계망들이 신뢰와 상호부조의 규범 및 시민참여의 역량을 생성한다고 보고 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유대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관계망 구성원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가교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Gittell & Vidal, 1998). 유대적 관계망은 구성원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신뢰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이며, 가교적 관계망은 구성원이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간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이다.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는데 있어, 관계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뢰와 상호부조가 속해 있는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③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는 시민의식(civic engagement)과 연관 지어 설명될 수 있다. 중세 행정구 내에 존재했던 자체방위를 위한 감시조직, 신도회, 길드, 그리고 12세기의 협력적인 상호원조단체, 침묵단체, 성가대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시민적 사회참여의 규범과 연결망에 포함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전제조건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적인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토그빌이 제시한 구성요소는 공식적으로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시민들 속에서 민주적 규범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 조직을 통해 시민들은 신뢰, 절제, 합의,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덕목을 교육받으며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의 기술을 훈련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내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Tocqueville, 1968). 동시에 존재하는 외부효과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집단의 형성이 그 자체의 내부적 분과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사회를 묶어주는 교차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이익 사이에서 다원적인 경쟁을 만들어 낸다.

(3) 사회적 자본의 측정

페트남은 미국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① 지역사회나 조직생활에 대한 참여의 강도 ② 투표 등과 같은 정치 참여나 관심 ③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④ 친구관계와 같은 비형식적인 사교성 ⑤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어렵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비교나 문화 간의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계은행 1990년대 후반이래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보건, 교육, 신뢰를 강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정책을 찾기 위한 행정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정치, 조직,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결정요소로써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상황변수가 된다는 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접근은 사회적 자본의 인지, 구조적, 제도적 요소의 결합한 접근이다. 특히 개인의 성향을 강조한다. 영국의 국가통계청(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 설문지(Harmonized Question Set)를 개발한 바 있다.

4) 노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본

노인일자리는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에 따른 문제들의 최소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인의 증가로 사회 안정망 미비 등으로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재반환경 마련의 필요, 잔존 능력에 대한 경제, 사회적 가치, 존엄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여 사회통합을 기여한다(변재관, 2005).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김동배 외, 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노인들이 생활리듬이 규칙해지면서 잡념의 감소, 성취감을 통해 찾아오는 마음의 안정, 삶의 의욕, 숙면 등을 통한 체력의 증가, 고정수입의 보장,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 일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해 생활만족도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안효철 2005).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참여를 통한 현 사회의 관심 영역 혹은 사회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노인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의 사회통합방안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계층으로서 노인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교체 및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배우자와 사별

하였거나 은퇴 등과 같은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외로움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권중돈, 2010).

노인의 사회참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iegrist & Wahrendorf, 2009),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기도 하고(Abu-Rayya, 2006),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년기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1989).

나이가 이러한 참여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관계망을 형성시켜준다. 이 경제적 사회참여를 통해 개인적, 지역사회적, 국가적인 정보교류의 장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인관관계를 엮어주기도 하고 찾아주기도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에는 오혜연(2009), 권구영 외(2007)의 연구 등이 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우울정도가 낮아지며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최은희, 2007).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는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망에 어떠한 형태로는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적인 신뢰 정도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뢰의 축적은 관계망의 결속을 강화하고, 불신 대상자는 연결망에서 배제하거나 제재를 가해 관계망 내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또한 신뢰가 축적되는 중요한 장으로서, 관계망 안에서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생겨나고 안정화 되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신뢰(trust)는 사회학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논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혈연 또는 사적인 친분만이 신뢰를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조된다. 제도는 특정행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는 자신감을 찾은 개인에 대한 신뢰, 관계를 통한 다른 이에 대한 신뢰, 노동의 기회를 부여해준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나 지역사회 관심은 시민적 사회참여를 향상시켜 또 다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선행연구

(1) 노인의 경제활동 및 고용에 관한 연구

노인과 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성석우(2007) 연구에서 일자리 참여 노인의 사회참여의 통합에 관한 결과로 2007년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노인은 전체노인 481만명의 11.8% 수준으로 2007년 현재 57만명에 달하나 정부지원 일자리 11만개만 제공되어 수요충족율이 19%에 불과한 실정에서 생계유지 등을 위한 일자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확대되고 이에 따라 노인층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적인 노년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片桐(2006)은 고령자 사회참여의 미시, 거시적 모델 구축의 연구에서 사회참여를 Rowe & Kahn(1998)의 성공적인 노년의 제3의 기준인 『인생에 적극적인 관여』를 실현 수단으로 정하여 대도시 남성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사회효용성(활동을 하지 않음, 혼자 취미활동, 그룹 활동, 사회공헌활동)과 심리적요인(이기적 지향, 네트워크 지향, 사회공헌지향)으로 분류하여 질적, 양적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분석결과 사회참여는 개인, 사회관계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참여에 의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부부사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의 효용성이나 심리적인 요인의 변화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이러한 요인을 통해 삶의 보람을 측정하였다.

通口(2002)은 후생노동성에서의 일본 고령자 고용의 정책 운용에 관한 분석 결과 당면 정년제를 유지하며 근무연장,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자 고용을 위해 임금제도를 개정하고 고령자 능력을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고령자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만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일자리참여만족도 연구검토로서 서양렬(2004)은 전라도 지역에 주거하는 노인들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평균 31만원 정도의 소득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12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일자리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부문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력개발원(2006)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근무환경, 하는 일, 근무시간은 만족하였으나 월 보수와 근무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보수와 근무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경희(2007)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참여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참여만족은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로도 나타나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사업 효과성 및 계량적 검증연구는 전해정(2004)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제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200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효과, 만족도, 노인 일자리 사업 희망욕구 등의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개인적으로 건강증진, 경제적 자립 등에 효과가 있으며, 10명 중 9명이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연구한 권구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그간의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사업자체의 효과성에 국한되어 있어 세부 하위 유형별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하위 유형별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사회참여수준, 주관적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유형가운데 교육형과 시장형 참여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노력과 함

계 교육형 및 시장형의 확대, 체계적인 효과성 평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보상수준 현실화 등을 제언하였다.

현재까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단순한 하위유형별 효과성만을 평가하거나 참여유형별로 주관적인 만족이나 주관적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개별 노인의 환경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표면적인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의 삶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노인의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망, 신뢰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살펴보는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강신옥·방혜선(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효과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은희(2007)와 안효철(2005)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향상된다고 하였다.

오혜연(2009)의 연구에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노인일자리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크기, 빈도, 지지적 기능에서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있어서는 건강할수록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크기, 빈도, 지지적 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로, 최인자(2006)의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에 노인들의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 참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크기, 빈도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연구 적용에 있어서 지표의 활용과 연관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한 나라의 행복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데, 거시적인 프로그램의 평가도구로서 조금씩 나타나기도 한다.

퍼트남은 지역사회, 조직에 관여하는 정도, 투표 등을 통한 공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성, 친구 방문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성, 상호 신뢰에 대한 자기보고 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미국 내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횡단적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글래저, 라임슨, 사서도티(Glaeser, Laibson, Sacerdote, 2000)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의를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의 구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징(신뢰, 상호의존, 사회적 기술 등)과 거시적인 제도의 특성(법적 규제, 계약의 시행, 시민의 자유 등)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은 거시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퍼트남(1993)은 네트워크로써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으며, 콜만(1990)은

커뮤니티 수준 속성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일반화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많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표를 정립해 나가며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사회복지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나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폭넓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개별노인이 그들의 보장받는 삶을 위해 참여하고, 정부가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노인의 삶에 어떤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창원시²⁾를 중심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참여노인은 500명, 비참여노인은 250명으로 총 750명을 조사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창원시에 위치한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시점(201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비참여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위한 대기자로 한번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창원시 전체 노인 중 무작위추출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킨 집단과 비참여 집단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을 구분한 집단 선정이었기 때문에 임의선정이며, 참여한 노인은 근무기간 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한 노인만 선정하였다. 하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자 선정은 난수표를 이용하여 단순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을 하였고, 사후점수를 위해 표집된 대상자에게 ID를 부여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로 노인일자리사업 사전점수 시기는 2010년 2월 16일에서 26일까지 약 2주간, 사후점수 시기는 2010년 10월 1일에서 15일까지 약 2주간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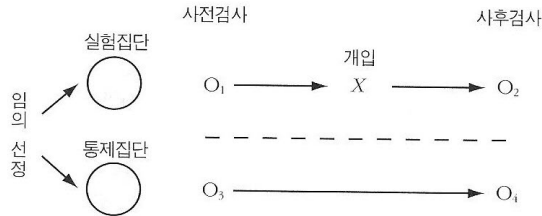
2) 연구모형

(1)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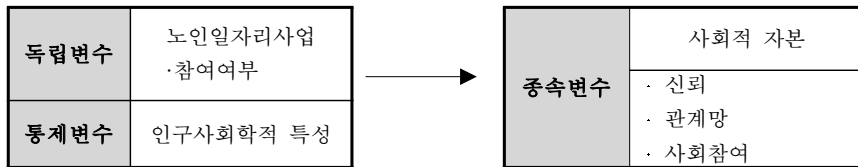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 변화를 기존의 물적·인적 자본을 포함한 인구사회학

2) 현재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역으로, 이전에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로 구분된 명칭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표기인 창원시로 통일하였다.

적 특성과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를 하였다.



<그림 1> 비동일 통제집단디자인



<그림 2> 연구설계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즉,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에 대한 증가와 감소에 대한 변화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 사회적 자본

여러 학자들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들이 다른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는 관계망, 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사회참여, 시민사회이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하였고, 각 구성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신뢰

신뢰는 Colman(1988)이 제시한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형성정도를 보았다. 즉,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 관계망

관계망은 Putnam(1994)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관계망을 유대적 관계망과 가교적 관계망으로 구분하여 형성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유대적 관계망은 구성원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형성된 신뢰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이며, 본 연구에서는 1차집단과 관련된 관계망으로 구성하였다. 가교적

관계망은 구성원이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간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이며, 본 연구에서는 2차집단과 관련된 관계망으로 구성하였다.

㉔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Tocqueville(1968)이 제시하는 시민적 사회참여의 개념으로 내부효과와 외부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그 조직을 통해 시민들은 신뢰, 절제, 합의,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덕목을 교육받으며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의 기술을 훈련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내부효과라고 하였다. 또한 외부효과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집단의 형성이 그 자체의 내부적 분과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사회를 묶어주는 교차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이익 사이에서 다원적인 경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인들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연대를 확인하는 것이 막연하여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성향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㉕ 물적 자본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구조물의 스톡³⁾을 말한다.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물적 자본은 소득과 주거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월소득, 소득형태, 근로형태, 고용형태, 주거형태, 주관적 경제상태를 물적 자본으로 하였다.

㉖ 인적 자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인간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특히 노동인구에게서 중요한 개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회참여와 관련된다. 본 연구의 구성요소는 최종학력, 직업교육, 은퇴전 직업, 주관적 건강상태로 하였다.

㉗ 기존의 사회적 자본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무시할 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입에 대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자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동태적 예산 제약 $SC_{t+1} = \delta SC_t$ 를 따른다. 여기서, SC_t 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저장⁴⁾을 나타내고, δ 는 감가 상각요인이다. 그러므로, $1-\delta$ 는 감가상각률이다. 또한 한 개인이 커뮤니티 안에서 θ 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회적 자본의 값은 감가상각 요인 λ 에 의해 감소한다.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가상각 요인을 ψ 라 하면, $\psi = \theta + (1-\theta)\lambda$ 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문조사의 영역에는 현재와 과거의 감가상각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ψ 는 이사 횟수로 설정하였다. 즉 이 변수는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위의 변수 설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미 획득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알고자 하는 사회적 자본은 아래와 같은 (1)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ψ 는 이사 횟수로 하여 독립변수로 설

3) 저량을 말하며, 영문으로 stock으로 나타낸다.

4) stock으로 주어진 시점에 (쌓여있는) 재화나 용역의 크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집아, 부동산 수, 기업의 부채크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이 저장이라 할 수 있다.

정하였다.

$$SC_{t+1} = f\left\{\frac{(PC_t + HC_t)}{\psi}\right\} \text{----- (수식 3)}$$

(SC_{t+1} : 현재 사회적 자본, PC: 물질 자본, HC: 인적 자본, ψ : 감가상각요인(이동성), t: 이미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시기)

(3) 노인일자리사업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개입(X)으로 두고, 사전과 사후 검사를 하였다.

(4) 사회적 자본의 지표

각각의 요소에 지표들을 배치하여 신뢰 영역 7개, 관계망 영역 8개, 사회참여 영역 6개로 총 21개의 지표이다. 각 영역별 지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자본의 지표

영역		지표
A. 신뢰	a.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A-a 친구에 대한 신뢰 정도 A-a 배우자에 대한 신뢰 정도 A-a 가까운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b.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A-b 모르는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 A-b 지역사회 합의 내용에 대한 신뢰 정도
	c. 제도에 대한 신뢰	A-c 정부기관 및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 정도 A-c 공공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 정도
B. 관계망	d. 유대적 관계망	B-d 친구, 친척, 이웃과의 월간 교류 정도 B-d 기록이나 보관하고 있는 친구 및 동료의 전화번호 수 B-d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 친척, 이웃 수 B-d 가족단위의 모임
	e. 가교적 관계망	B-e 반사회 교류 정도 B-e 주민행사관련 교류 정도 B-e 동문 및 동호회, 운동, 친교모임 교류 정도 B-e 공공기관 사업 및 활동 정보교류 정도
C. 사회참여	f. 내부효과	C-f 연간 봉사활동 참여 횟수 C-f 연간 후원 및 기부활동 참여 횟수 C-f 지역사회 불법행위 신고 정도
	g. 외부효과	C-g 정치적 이슈나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 C-g 정부기관 및 관련사업 기관에의 의견제시 정도 C-g 투표에 대한 의향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종학력, 은퇴전 직업, 평균소득수준, 건강상태, 생활상태, 결혼상태, 주거상태, 거주기간, 이사회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는 통제집단이 학력이 다소 낮았고, 은퇴전 직업은 통제집단이 전문직이나 공무원, 기술적인 경우가 더욱 많았다. 연령은 두 집단 모두 65세 이상에서 70세미만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실험집단은 75세 미만인 78.0%였고, 통제집단은 76.0%였다. 평균소득의 경우는 실험집단이 더욱 높았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실험집단 대상자들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통제집단이 사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70.4%, 통제집단은 69.2%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실험집단이 더 길었으며, 이사회횟수 또한 실험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집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특성으로 참여유형은 복지형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인력파견형이 5%로 가장 적었다. 참여기관 중 시니어클럽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이 34.4%를 차지하였다. 참여시간은 주당 평균 9.8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참여동기 중 생계비 마련이 39.0%, 용돈마련이 25.6%로 가장 많았고, 사회활동 참여 19.0%, 여가활동 15.0%,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가 1.4%를 차지하였다. 참여만족도에 대해서는 71.8%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유형은 복지형, 교육형, 공익형이 많은 편이며, 참여동기로 소비활동을 위한 동기가 가장 많았다.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변화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 비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총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었다.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후-사전 변화정도를 보았으며, 측정시기에 따른 사회적 자본 점수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표본 t-검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의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측정시기와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 차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측정시기와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 차이

구분			참여	사전		사후		paired t	사후- 사전 (t)
				M	SD	M	SD		
사회적 자본	신 뢰	친근신뢰	참여	2.69	0.77	2.94	0.62	-5.651***	5.471***
			비참여	3.29	0.63	3.29	0.55	.154	
		비친근신뢰	참여	1.55	0.56	2.44	0.63	-24.609***	24.609***
			비참여	2.28	0.92	2.28	0.92	-	
		제도신뢰	참여	2.42	0.61	2.62	0.54	-5.470***	4.892***
			비참여	2.48	0.67	2.49	0.62	-1.775	
	신뢰전체	참여	2.22	0.52	2.67	0.53	-13.567***	13.243***	
		비참여	2.68	0.53	2.69	0.50	-.850		
	관 계 망	유대적관계망	참여	1.39	0.32	1.38	0.28	.102	-1.032
			비참여	1.49	0.38	1.50	0.37	-5.474***	
		가교적관계망	참여	2.23	0.57	2.47	0.55	-6.405***	5.307***
			비참여	2.62	0.59	2.66	0.58	-6.620***	
관계망전체		참여	1.81	0.39	1.93	0.37	-4.734***	3.542***	
		비참여	2.05	0.42	2.08	0.41	-8.009***		
사 회 참 여	내부효과	참여	2.48	0.68	2.46	0.68	.288	-.288	
		비참여	2.01	0.73	2.01	0.74	-		
	외부효과	참여	2.54	0.52	2.52	0.52	.512	-.512	
		비참여	2.39	0.58	2.39	0.58	-		
	사회참여 전체	참여	2.51	0.51	2.49	0.49	.458	.458	
		비참여	2.20	0.57	2.20	0.57	-		
	전체	참여	2.18	0.37	2.36	0.34	-7.872***	7.374***	
		비참여	2.31	0.37	2.32	0.36	-5.172***		

* p<.05 ** p<.01 *** p<.001

위의 <표 5>에서 살펴보면, 사회참여 중 외부효과, 내부효과, 사회참여전체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점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외 모든 변인에서는 긍정적인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비참여 노인의 경우는 관계망 중 유대적 관계망, 가교적 관계망, 관계망 전체, 전체적인 사회적 자본 수준에서 유의한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친근 신뢰와 비친근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신뢰 전체, 가교적 관계망, 관계망 전체, 사회참여 전체에서는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정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와 시기(사전-사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전점수 통제 후 실험-통제집단의 사회적 자본 변화 검정

앞의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실험-통제집단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 참여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후,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 차이가 기준에 가지고 있는 물질·인적·사회적 자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해 인

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사전점수의 결과를 통제하여 사회적 자본을 검증하였다. 참여여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및 사회적 자본 차이

실험-통제집단은 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주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참여여부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②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

각각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따라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력, 은퇴전 직업유무, 수입유무, 평균소득, 건강상태, 생활형편,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거주기간, 이사횟수, 동거가족수 및 각 변수의 사전점수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신뢰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6〉 신뢰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친근신뢰		비친근신뢰		제도신뢰		전체	
	F	p	F	p	F	p	F	p
성별(남)	.070	.792	.351	.554	.010	.922	.479	.489
최종학력	.975	.324	1.251	.264	.078	.781	.026	.871
은퇴전직업(유)	1.030	.310	.003	.957	1.080	.299	.160	.689
수입여부(유)	.048	.826	.031	.861	.393	.531	.214	.644
평균소득	.001	.971	.999	.318	4.427*	.036	1.626	.203
건강상태	.007	.936	2.481	.116	.003	.957	.258	.612
생활형편	.154	.695	.137	.711	1.137	.287	.539	.463
결혼(배우자-유)	.090	.765	.165	.685	1.524	.217	.683	.409
생활공간	.272	.602	.033	.856	.511	.475	.093	.761
거주기간	4.165*	.042	.534	.465	1.266	.261	.793	.373
이사횟수	1.587	.208	.073	.787	12.864***	.000	1.790	.181
동거가족수	7.923**	.005	.354	.552	8.731**	.003	4.019*	.045
사전점수	20.849***	.000	346.603***	.000	75.672***	.000	67.109***	.000
참가여부	28.196***	.000	122.891***	.000	7.431**	.007	6.535*	.011

* p<.05 ** p<.01 ***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의 경우 각 점수는 해당변인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라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거주기간, 동거가족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뢰에 대해서는 공변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제도신뢰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평균소득, 이사횟수, 동거가족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동거가족수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확히 말하면, 앞의 분석에서 모든 신뢰영역에서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뢰를 제외하고는 신뢰에 대한 차이가 몇몇 공변인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친근 신뢰영역은 참여여부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참여여부에 따라 신뢰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에타 제곱값은 효과의 크기를 말해주는데, 참여여부의 효과크기가 .00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참여여부가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뢰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관계망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전점사를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관계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7〉 관계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유대적 관계망		가교적 관계망		전체	
	F	p	F	p	F	p
성별(남)	.017	.895	2.376	.124	1.093	.296
최종학력	.045	.831	.068	.794	.103	.748
은퇴전직업(유)	.017	.898	4.112*	.043	2.080	.150
평균소득	.235	.628	.464	.496	.460	.498
건강상태	.409	.523	8.186**	.004	5.185	.023
결혼(배우자-유)	.099	.754	10.130**	.002	6.054*	.014
생활공간	.270	.604	5.784*	.016	3.811	.051
거주기간	.000	.995	.125	.723	.080	.778
동거가족수	.000	.996	.092	.761	.024	.877
사전점수	106.100***	.000	50.836***	.000	64.205***	.000
참여여부	15.999***	.000	8.706**	.003	12.974***	.000

* p<.05 ** p<.01 ***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망의 경우 각 점수는 해당변인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라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대적 관계망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었으며, 가교적 관계망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은퇴전 직업, 건강상태, 결혼상태, 생활공간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전체 관계망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결혼상태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앞의 분석에서 가교적관계망과 관계망전체에서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대적 관계망을 제외하고 가교적 관계망과 관계망전체에 대한 차이는 몇몇 공변인 영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대적 관계망 영역은 참여여부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여부의 효과크기가 .0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참여여부가 관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관계망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㉔ 사회참여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전검사를 통제한 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8〉 사회참여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변인	내부효과		외부효과		전체	
	F	p	F	p	F	p
성별(남)	5.745*	.017	5.215*	.023	7.907**	.005
최종학력	.831	.362	.103	.748	.607	.436
은퇴전직업(유)	1.133	.287	3.686	.055	2.966	.085
수입여부(유)	.100	.752	1.469	.226	.183	.669
평균소득	1.940	.164	.160	.689	1.375	.241
건강상태	3.285	.070	14.788***	.000	10.784**	.001
생활형편	1.723	.190	1.914	.167	2.592	.108
결혼(배우자-유)	1.123	.290	.930	.335	1.514	.219
생활공간	1.609	.205	.827	.364	.156	.693
거주기간	2.662	.103	1.788	.182	3.348	.068
이사횟수	13.728***	.000	2.053	.152	10.883**	.001
동거가족수	.852	.356	1.897	.169	.007	.934
사전점수	71.988***	.000	75.692***	.000	72.533***	.000
참가여부	15.527***	.000	.049	.826	8.215**	.004

* p<.05 ** p<.01 ***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참여의 경우 각 점수는 해당변인의 사전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효과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성별, 이사횟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성별,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전체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공변인 중 성별, 건강상태, 이사횟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대한 차이가 이러한 공변인 영향력도 있지만 내부효과와 사회참여 전체 영역은 참여여부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여부의 효과크기가 .0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참여여부가 관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참여 정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전체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각 점수는 해당변인의 사전점수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자본 변화유형별 특성

앞의 분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대한 차이와 변화정도를 살펴보았고, 실험집단에서 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후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몇 가지 유형으

로 나누었고, 이렇게 나누어진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로 사후검사 후 점수가 증가된 집단, 감소한 집단, 변화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사회적 자본 변화를 <표 10>과 같이,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다시 2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 10>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간의 변화 관계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전체
		감소	변화없음	증가	
감소	감소	48(9.6%)	1(0.2%)	14(2.8%)	63(12.6%)
	변화없음	1(0.2%)	0(0.0%)	1(0.2%)	2(0.4%)
	증가	22(4.4%)	0(0.0%)	28(5.6%)	50(10.0%)
	전체	71(14.2%)	1(0.2%)	43(8.6%)	115(23.0%)
변화없음	감소	2(0.4%)	0(0.0%)	1(0.2%)	3(0.6%)
	변화없음	0(0.0%)	0(0.0%)	1(0.2%)	1(0.2%)
	증가	0(0.0%)	0(0.0%)	1(0.2%)	1(0.2%)
	전체	2(0.4%)	0(0.0%)	3(0.6%)	5(1.0%)
증가	감소	92(18.4%)	1(0.2%)	48(9.6%)	141(28.2%)
	변화없음	0(0.0%)	0(0.0%)	2(0.4%)	2(0.4%)
	증가	91(18.2%)	4(0.8%)	142(28.4%)	237(47.4%)
	전체	183(36.6%)	5(1.0%)	192(38.4%)	380(76.0%)

<표 10>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변화없음에 대한 집단의 빈도가 매우 적어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8개의 유형으로 재정리하였다.

- ㉠ 유형 : 신뢰(감소) - 관계망(감소) - 사회참여(감소)
- ㉡ 유형 : 신뢰(감소) - 관계망(감소) - 사회참여(증가)
- ㉢ 유형 : 신뢰(감소) - 관계망(증가) - 사회참여(감소)
- ㉣ 유형 : 신뢰(감소) - 관계망(증가) - 사회참여(증가)
- ㉤ 유형 : 신뢰(증가) - 관계망(감소) - 사회참여(감소)
- ㉥ 유형 : 신뢰(증가) - 관계망(감소) - 사회참여(증가)
- ㉦ 유형 : 신뢰(증가) - 관계망(증가) - 사회참여(감소)
- ㉧ 유형 : 신뢰(증가) - 관계망(증가) - 사회참여(증가)

위의 8개의 사회적 자본 변화의 유형별 특성을 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 변화 효과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사회적 자본 변화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자본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 상태에서만 각 사회적

자본 유형별 $\chi^2=35.614(p=.024)$ 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⑧유형이 생활상태가 매우 어려운 노인이 42.6%로 가장 많았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노인에서도 2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상태가 조금 여유로운 노인층에서는 ⑤유형이 2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중 신뢰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 사회적 자본 변화유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특성

참여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에 대한 사회적 자본 유형을 살펴보면, 각 사회적 자본 유형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chi^2=51.048(p=.005)$ 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여동기 역시 $\chi^2=43.076(p=.034)$ 로 각 사회적 자본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유형 중 공익형은 사회적 자본의 ⑧유형은 36.0%, ⑦유형은 26.1%로 가장 많이 나타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켰다. 교육형은 ⑤유형이 21.4%, ⑦유형이 20.4%, ⑧유형이 19.4%로 신뢰는 모두 증가되었다. 복지형은 ⑧유형이 25.4%, ⑤유형이 24.4%로 나타났으며, 시장형은 ⑧유형이 45.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력파견형은 사회적 자본이 변화한 노인수가 적은 편이나, ⑧유형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참여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⑧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인 사회적 자본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하면서 일반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개발하여 병행되어야 한다.

참여동기 중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한 노인이 ⑧유형이 34.6%로 가장 많았고, ⑦유형이 18.8%로 나타났다. 이는 생계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 사업을 통해 그들에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용돈마련을 위해 참여한 노인도 ⑧유형이 32.0%로 가장 많았고, 여가 활용을 위해 참여한 노인도 ⑧유형이 25.0%로 가장 많았다.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참여한 노인은 ⑤유형이 30.1%로 가장 많았고, ⑧유형이 20.4%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관계망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빈도수가 적은 부분은 있으나, ①유형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신뢰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사업, 즉 소득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여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고, 시기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인 소득보장, 사회참여, 노동기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 중 신뢰 형성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만족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신뢰 즉 친근하고 사적인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참여 노인은 큰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내가 신뢰하는 부분과 타인이 나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점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적 복지, 건전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 자원이다. 후쿠야마는 서구사회 변영의 핵심 화두로 신뢰를 제시하였다. 퍼트남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후쿠야마의 연구 이후 신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수많은 연구가 많이 나타났는데,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들여야 하는 거래비용이 줄어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이 대부분 이었다. 신뢰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록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서로가 보편적 규범을 좇아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회관계에서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낮은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경계심을 줄여주며, 정치적·문화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공동체에서의 협동은 물론 타인을 위한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집단 결속력을 만들어낸다. 또한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준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Fukuyama, 1995). 신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이며, 인간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기존의 물적·인적 자본을 가진 노인 집단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인 신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신뢰가 모두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사적이고 친근한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전체 신뢰도 형성시켜 주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사

회적 자본 중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으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즉 사회적 자본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더욱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동기가 생계비를 마련과 용돈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참여한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충적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들은 보충적 소득보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공급자와 참여자간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보상의 수준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월 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침에서는 보충적 소득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득 보장정책으로서의 정책목표를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예산사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장형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수익 모델 발굴이 어렵고, 운영 면에서도 경영지식이 전문한 상태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시장조사와 아울러 지역에 맞는 수익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참여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나마 근로 소득자를 제외하면 퇴직금 제도에서도 소외된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낮은 경제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의 노동참여율마저 낮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 부분에서, 사업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일자리유형에서 사회참여는 상승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특히 사회참여가 증가하였다. 짧은 참여기간 동안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참여는 보호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적 사업이라는 논의를 종식하고 사회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체제 내에서 기능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의 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 대한 기대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연구지표와 영향변수를 구상하여 복잡한 과정으로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지표가 아직 연구지표로서 과학적으로 명확히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만드는 과정과 해석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연구지표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옥·방혜선. 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9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287-310
- 권구영·박공식.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집 3호 한국노년학회, pp. 527-547.
- 권중돈. 2010. 『노인복지론(4판)』, 서울: 학지사
- 권중돈·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9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81-106
- 김경희. 2007.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박은영. 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8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39-358
- 김선희. 1989.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재관. 2005.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정책&지식, 제187호.
- 서양열. 200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1-51.
- 성석우. 2007.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호. 2004. 『지방정체성과 사회자본(I): 대전, 충청지역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 안효철. 2005.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연.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제24집 2호 한국노년학회, p. 57.
- 임우석. 2008. '도시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1집 제2호, 한국도시행정학회, pp. 376-377.
- 전혜정. 2004.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제26집,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37-361.
- 최인자. 2006. 『노인일자리 사업과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7.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노인일자리사업 심층평가』.
- Abu-Rayya, H. M. 2006. Depression and social involvement among elders. *Internet Journal of Health*, 5(1). pp. 9-13
-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upplement) 94: pp. 95-12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 Gittel & Vidal, 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Glaeser, E., D. Laibson and B. Sacerdote, 2002. *The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NBER Working Paper no. 7728.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utnam,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March 21, 13.
- Siegrist, J. and M. Wahrendorf. 2009. Participation in socially productiv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early old age: findings from SHAR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4): pp. 317-326
- Stolle, D.,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c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NY: Palgrave.
- Tocqueville, 1968. *Democracy in America*. London: Fontana.
- 樋口 美雄・山本, 勳. 2002. わが國の高齡者雇用の現状と展望 - 管理・雇用政策の評価-, 日本銀行, 金融研究 第21号 第2
- 片桐 恵子. 2006. 年退職者の社會参加のマイクロマクロモデル構築, 東京大學 學術博士論文.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from Participa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s

Jang, Yu-Mi
(Changshin Colleg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rough change of social capital by understanding how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in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of Korea has effected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The method of research was to design the research in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s design from the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the 500 elderly who participated and 250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rough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 by classifying into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during 7 months from March 1, 2010 to September 30, 2010 to those above 65 living in Changwon. The social capital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among the measurement index of the study has been set as trust,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field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 background. When the fact that there is a partial difference in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nd the timing (before/after) is looked at in terms of change of social capital after controlling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and the pre-score, there are differences per timing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us,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trust,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 capital all increased in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status. It can be seen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brings forth increase of social capital for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status. Among the social capitals,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showed that the trust increased the most. Consequ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rehensive social capital, the programs must be carried

out focused on the vulnerable class in parallel to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for the general elderly of other classes.

Key words: elderly employment programs participation, trust, network, social participation,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논문 접수일 : 11. 02. 23, 심사일 : 11. 03. 09, 게재 확정일 : 11. 03. 24]